

제 목 : 「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」 T/F `1차 회의 개최

1. 행사 개요

-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'15.10.5일(月) 「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」 제1차 T/F 회의를 주재하고, 금융개혁의 핵심과제로 금융회사 자산관리서비스의 근본적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힘
 - 임종룡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저금리·고령화와 장기투자의 확산으로 전문적인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, 금융회사들은 여전히 판매 일변도의 거래관행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
 - 임 위원장은 향후 「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」를 통해 판매 일변도의 거래관행을 판매와 자문, 운용이 균형 있게 융합된 종합 자산관리 형태로 전환하는 한편
 - 투자자들이 자산관리서비스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고객 접점을 확대하는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
- 금일 T/F 1차회의에는 금융위·금감원의 고위관계자, 각 금융업권의 협회장, 연구원장 등이 참석하여 자산관리 서비스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, T/F 운영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대안들을 모색하기로 함

2. 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의 추진배경

- 성공적인 자산관리를 위한 전문가의 도움이 중요해지고 있음
 - 저금리·고령화로 자산관리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, 금융상품의 복잡·다양화, 장기 상품의 증가 등으로 관리의 전문성이 심화
-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국민들은 전문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

- PB(private banking)서비스는 고액자산가의 전유물로 여겨지고 있으며,
 - 일반적인 금융회사 창구에서는 “상품판매”를 넘어선 “자산관리” 서비스를 기대하기 힘든 것이 현실
- 이것은 금융회사들의 영업행태가 여전히 업권별로 분화된 상품판매 위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큰 원인이 있음
- 은행의 경우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, 신탁을 이용한 금융상품 판매채널로서의 역할에 국한
 - 증권사의 경우 고객별 맞춤 관리를 위한 제도는 갖추고 있으나, 단기수익 중심의 상품판매형 영업*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
 - * 장기적인 자산관리보다는 매매회전율을 높여 단기수익을 극대화하려는 행태 등
 - 자산운용사나 독립 투자자문·일임업자의 경우 고객 대면 채널의 부재로 독자적인 자산관리 서비스의 공급이 어려운 상황
 - * 이에 따라 은행이나 증권사 등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생산 등에 주력
- 장기투자과 연금자산의 증가, ISA 도입 등과 함께 다양한 금융 상품을 통합관리하려는 투자자들의 수요가 더욱 증가할 전망
- ⇒ 자산관리 서비스의 틀을 바꾸어 새로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

3. 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추진 방향

① 자산관리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

- 금융상품 판매 위주의 영업관행을 고객 포트폴리오에 대한 종합적 자문 및 운용을 통한 자산관리 위주로 전환
- (예시) 금융회사의 자문기능 강화, 독립투자자문업자 육성, 일임·신탁업에 대한 규제정비를 통해 자산관리 수단으로서의 기능 강화 등

② 자산관리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

- 투자자가 어느 금융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충분한 자산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자산관리 서비스 기능을 강화
- (예시) 금융회사의 통합자산관리 서비스 강화, 온라인 자문업 도입, 펀드 판매채널 확대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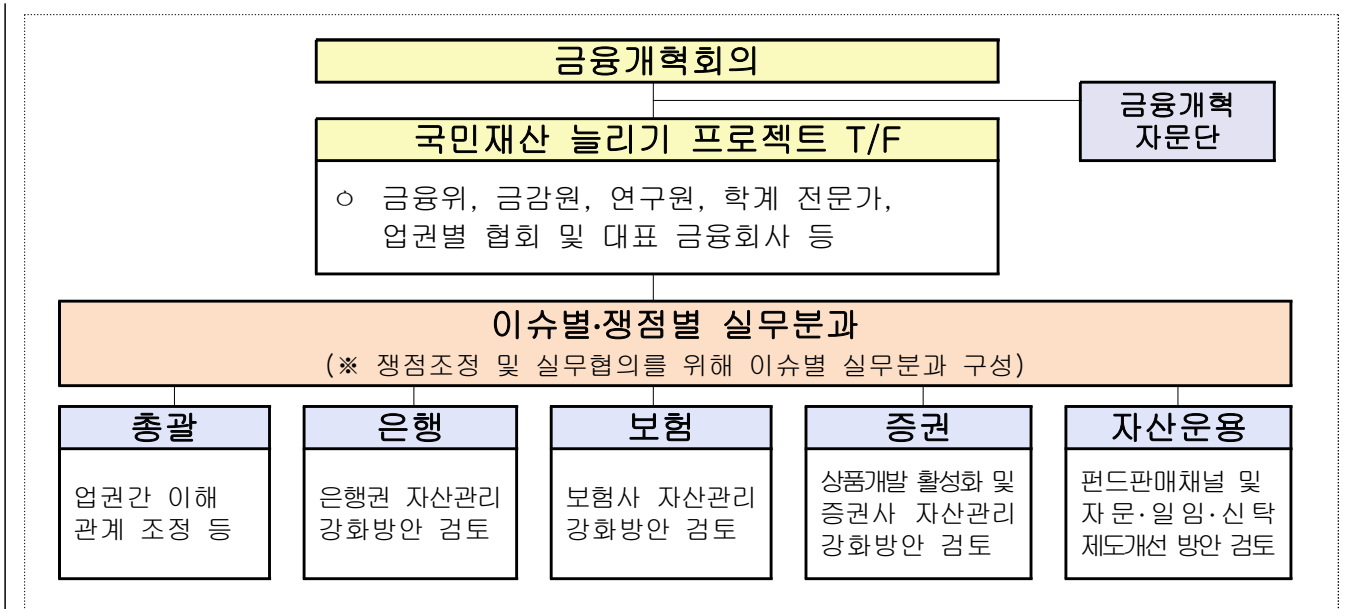
③ 자산관리 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 확대

- 경쟁력 있고 혁신적인 투자상품의 개발을 확대하여 자산관리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 마련
- (예시) 증권사, 운용사의 상품개발기능을 강화하여 중위험·중수익, 손실제한형·목표수익형 금융상품 등 매력도 높은 상품의 개발 확대
- * 다양한 ETF, ETN 상품이 출현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 완화, ELS형 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 및 펀드 투자광고 규제 개선 등

4. 향후 추진계획

- 금융위, 금감원, 연구원, 업계 등이 참여하는 “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T/F”를 구성하여 자산관리서비스 개선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업권간 이해관계를 조율해 나갈 계획

< 국민재산늘리기 프로젝트 추진 체계(안) >



- T/F 논의는 실무자위주로 현장감 있게 진행하되, 추진상황을 금융위원장 주재 T/F 회의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형태로 운영
- T/F를 통해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, 금융개혁회의 논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추진방안을 확정할 예정
 - 10월 중 업권별 의견 수렴 및 기본 추진방안 마련
 - 11월 중 공청회 개최 및 금융개혁자문단 논의 등 추진
 - 연말까지 최종 방안 확정·발표